

박인덕의 전기와 관련한 오류*

김옥동**

요약

은봉 박인덕은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여성 계몽운동가요 교육자로서밖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나마 국내 및 외국 학자의 연구에는 그녀의 전기적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또는 틀린 부분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박인덕의 출생연도는 흔히 1897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896년(병신년)이고, 그녀가 사망한 때도 1980년 4월 3일이다. 또한 그녀의 교육 과정과 관련한 기록도 학계에 거의 대부분 잘못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해서 박인덕은 1908년 진남포 삼숭(三崇)학교를 졸업한 뒤 1912년에 이화학당 중학부를 졸업하였고, 1916년에 이화학당 대학부를 제3회로 졸업하였다. 김운호와 결혼하여 두 딸을 낳은 뒤 1926년 7월 미국 조지아 주 소재 웨슬리언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1928년에 학사학위를 받았다. 1931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유럽을 거쳐 귀국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운호와 결혼이나 이혼 과정도 적잖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 김운호는 몇몇 학자가 주장하듯이 ‘부호’나 ‘백만장자’가 아니라 중산층 수준이 넘는 비교적 안정된 집안의 4남 4녀 중 막내아들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박인덕이 한글 보급 운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지,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친일 행위를 하였는지 하는 주장도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난다. 이 논문은 이렇게 박인덕의 전기와 관련하여 오류가 많은 것을 이유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찾는다. 첫째, 그동안 박인덕 연구에서 지나치게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종교적이거나 신앙적 관점에서 박인덕의 업적을 평가하였다. 셋째, 박인덕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앞으로 박인덕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정확한 전기적 사실 위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박인덕, 자서전, 이민 자서전, 한국계 미국 문학, 여성 운동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은봉(銀峰) 박인덕(朴仁德, Induk Pahk)은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독립운동가나 근대 여성운동가 또는 교육자로서밖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일찍이 한국 최초의 여성 잡지라고 할 『신여자(新女子)』의 창간 편집동인이었으며, 1921년에는 문학동인지 『장미촌(薔薇村)』 발간에 참여한 문인이었다. 외국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자요, 또한 영문으로 자서전을 세 권이나 집필하여 미국에서 출간하여 한국계 미국 문학(Korean American Literature)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다진 작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무슨 까닭에서인지 박인덕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부진하였다(김옥동 2004, 125; 김옥동 2007, 2; Han 1996, 143-57). 같은 시기나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여성 운동가들 가운데에서 박인덕만큼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도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박인덕에 관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차치하고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그녀를 친일과 여성 운동가로 평가하여 그녀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다. 박인덕은 기미독립운동 때 이화학당(梨花學堂) 교사로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유관순(柳寬順)을 비롯한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뒷날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전력 때문에 거의 언제나 ‘친일파’나 ‘반민족 행위를 한 여성 명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들어 일제 강점기 일본 식민주의 정책에 협력한 친일파의 청산 작업과 맞물리면서 박인덕은 비판의 도마에 자주 오르내린다. ‘永河仁德’으로 창씨를 개명한 박인덕은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議會) 위원을 역임한 것을 비롯하여 1943년에는 조선교회단체인 연합회(朝鮮敎化團體聯合會) 부인계몽독려반에서 활동하였고,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 1945년에는 조선언론보국(朝鮮言論報國)의 이사를 맡았다. 그리하여 강정숙(姜貞淑)은 박인덕을 아예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로 못 박는다(1993, 295-302).

박인덕에 관한 두 번째 평가는 주로 기독교 쪽에서 이루어져 왔다.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일찍이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한테서 기독교의 교화를 받은 박인덕은 사망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묵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소녀 시절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받다가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 세운 미션스쿨에서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은 박인덕은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친숙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Pahk 1954, 36)고 밝힌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박인덕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 자전적 글인 「파란(波瀾) 많은 나의 반생(半生)」에서 그녀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나 나 개인 스사로서나 나는 나를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1938, 212)하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 학계에서는 그녀를 주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왔다. 예를 들어 구완서(具完書)는 최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박인덕의 삶과 사상을 밝힌 대표적인 연구가이다(2008, 7-36).

박인덕에 관한 세 번째 연구는 주로 사생활을 관련하여 신변잡기적이고 선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사람 냄새 나는 인문학’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박인덕의 개인적 삶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예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전봉관(全峯寬)으로 박인덕을 “조선의 노라”로 일컬으며 그녀의 결혼이나 이혼과 관련한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2006, 281-308; 342-48). 앞의 두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기담과 스캔들에 무게를 실는 전봉관의 작업은 학구적 연구라기보다는 문학적 에세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황색 저널리즘에 가깝다. 전봉관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를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정숙 같은 선행 연구자들이 범한 과오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박인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녀에 관한 전기적 사실은 터무니없이 과장되거나 이와는 반대로 크게 축소되는 등 여



러모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나온 박인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러저러한 면에서 잘못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려진 박인덕의 전기적 오류를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목표를 둔다. 인물 연구에서 부정확한 역사적 사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그릇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자칫 연구의 공중누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박인덕의 전기를 둘러싼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번역자나 문학가로서 그녀의 활동과 업적을 밝힐 것이다. 또한 박인덕의 전기적 사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기 비평(biographical criticism)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박인덕의 출생과 사망

박인덕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한 오류 중에서도 출생이나 출생지 그리고 사망과 관련한 오류가 무엇보다도 주목을 끈다. 그동안 그녀의 출생연도나 출생지 그리고 사망연도와 관련한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학계에 잘못 알려져 왔다. 박인덕은 비교적 근대에 활약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는 의외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 알려진 그녀의 출생연도는 1897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연구자들은 “이광수(李光洙)와 달리 일찍이 극우 파시스트 정치보다 미국 자유주의에 다 가까웠던 도미(渡美) 유학과 출신의 박인덕(1897-1980)도 ‘여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군사교련을 함으로 단체행동, 질서적 생활, 신체 달련 등을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여 남성은 물론 여성의 군사화까지 적극 찬성할 정도이었다”(김현철 외 2005)고 밝히면서 박인덕의 출생연도를 1897년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네이트’ 용어사전을 비롯한 한국감리교 인물사전과 기독교백과사전

등 국내 인물사전이나 백과사전에도 그녀의 출생연도가 하나같이 1897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박인덕은 1897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일 년 전인 1896년 9월에 태어났다. 1939년 3월 박인덕이 잡지 『여성(女性)』에 기고한 「나의 자서전(自敘傳)」이라는 글을 보면 그녀가 언제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는 원숭이해 용날(龍日) 호랑이시(虎時)에 (明治 三十年 九月 二十四日) 생을 받았어요. 곳은 평안남도 진남포 억양리(平南 鎭南浦 億兩里)라는 데였읍니다. 일곱 살 때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니 어머니는 청춘과부가 되고 말았지요. 아들이 셋, 딸이 한아, 그 하나인 딸이 지금 나구려. 박인덕이 그 하나인 딸이었읍니다.(박인덕 1939a, 38)

박인덕의 말대로 원숭이해에 태어났다면 간지(干支)로는 병신년(丙申年)에 해당하므로 1896년에 태어난 것이 된다. 괄호 안에 “메이지(明治) 30년”으로 표기한 것은 아마 계산을 잘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메이지 원년이 1868년이므로 1896년이라면 메이지 29년이다. 그녀가 ‘용일’ 이니 ‘호시’니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양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음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틀림없다. 요즈음 젊은 세대와는 달라서 20세기를 전후하여 태어난 사람은 서력기원보다는 간지로 자신이 태어난 해를 기억하기 일쑤이고 이 기억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다. 박인덕은 자신이 병신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단 「나의 자서전」에서 밝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월 원숭이(September Monkey)』(1954)를 비롯한 여러 자서전에서도 일관되게 언급한다. 또 위 인용문에서 박인덕은 자신이 태어난 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닭달(酉月)에 태어났다. 뒷날 박인덕은 영문으로 자서전과 잠언집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자와 시간을 각각 그 제목으로 삼는다. 즉 방금 앞서 언급한 『구월 원숭이』를 비롯하여 『호랑이 시

《The Hour of the Tiger》(1965), 『새벽닭은 아직도 운다(The Crow Still Crows)』(1977), 『용의 지혜(The Wisdom of Dragon)』(1970)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박인덕은 방금 앞에서 언급한 「과란 많은 나의 반생」에서 “나는 진남포 억양기(億兩機)라는 동리에서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나서 일곱 살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귀여운 딸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1938, 207) 하고 밝힌다. 또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박인덕은 “어적께가 제41회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212) 하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박인덕은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자신의 생년과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박인덕이 태어난 1896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자못 굵직한 획을 그은 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바로 이 해에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 Philip Jaisohn)은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할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역시 한국 최초의 사회정치 단체라고 할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설립하였다. 1896년은 고종(高宗)과 세자가 경운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이 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가 외세의 각축장이 되는 한편, 이러한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부르짖는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던 해이다. 이렇듯 박인덕은 역사적 전환기에 태어났던 것이다.

박인덕이 태어난 곳도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가령 한국계 미국 학자 오세웅(吳世雄, Seiwoong Oh)은 “평양 근교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밝힌다(2001, 289). 물론 그녀의 출생지를 오세웅처럼 ‘평양 근교’로 말할 수도 있을 터이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녀가 태어난 곳은 평양과는 꽤 멀리 떨어져 있다. 평양에서는 남서쪽으로 6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진남포, 진남포에서도 서쪽으로 다시 5킬로미터 더 들어가야 그녀가 태어난 곳이 있다. 항해 입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한편 대부분의 학자들은 박인덕이 출생지를 평안남도 진남포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녀는 평안남도 용강(龍岡), 지금의 남포직할시 용강군에서 태어났다. 물론 이러한 혼란은 그동안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빚

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인덕이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억양리 ‘면양딸’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면양딸’이란 도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마을이라는 뜻이다. 기미독립운동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박인덕의 본적은 “平南 龍岡郡 大代面 德洞里 322번지”로 되어 있고, 출생지는 “平南 鎭南浦府 億兩機里”로 되어 있다(netfiles.uiuc.edu). 박인덕은 진남포부 억양기리에서 아버지 박영하(朴永河)와 어머니 김온유(金溫柔)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세 차례나 과거 시험인 대과에 응시하였던 유학자로 과거제도가 없어지자 고향에서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일찍이 아들을 들이나 잃은 박영하는 세 번째로 태어난 딸이 특별히 병신년 구월 용일 인시에 태어난 것을 보고 자못 놀란다. 박인덕이 자서전 『구월 원숭이』에서 밝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 박영하는 딸이 태어난 사주를 보고 무척 놀라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집아이는 원숭이, 닭, 용, 그리고 호랑이 사주를 받고 태어났구나. 이 아이가 이런 모든 특징을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재주 있고, 닭처럼 울며, 용처럼 힘이 세고, 호랑이처럼 용맹하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사내아이가 이러한 사주를 받고 태어났다면 아마 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도 남을 것이야!” (Pahk 1954, 14)

이렇게 강한 남성적인 기질을 꺾기 위하여 박영하는 딸의 이름을 지극히 여성적인 이름인 ‘임덕(姪德)’이라고 짓는다. 한 중국 황제의 어머니 이름에서 ‘임’ 자를 따온 이 이름은 정숙하고 덕이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다. 뒷날 박인덕은 소리가 좋아 ‘명종(鳴鐘)’이라는 호를 짓기도 하고 은빛 봉우리라는 뜻이 좋아 ‘은봉’이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덕이 여섯 살이 되던 1902년 전국을 휩쓴 콜레라로 아버지와 함께 갓 태어난 남

동생을 잃고 두 모녀만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박인덕의 부모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어린 시절에 모두 잃고 외동딸 하나만 남겨 두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나의 자서전」에서 박인덕은 “아들이 셋, 딸이 한 아, 그 하나인 딸이 지금 나구려”(1939a, 38) 하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인덕이 사망한 해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980년을 사망한 해로 간주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강정숙은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1896-198?’로 표기함으로써 사망한 연도가 불확실하다고 밝힌다(1993, 295). 그러나 박인덕은 여든네 살의 나이로 1980년 4월 3일 서울에서 사망하였다. 그녀가 설립한 인덕실업학교(仁德實業學校)가 1979년 인덕공업전문대학(仁德工業專門大學)으로 승격한 지 일 년 뒤 그녀는 학교 구내에 위치한 학장 공관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I. 박인덕의 교육 과정

박인덕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기는 그녀의 교육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정숙은 “과부가 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하나뿐인 딸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신념에서 기독교계인 진남포의 삼성학교에 입학시킨 것이 그녀가 기독교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1993, 295)고 지적한다. 한편 그동안 박인덕을 비롯한 근대 계몽기 여성 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주로 ‘기담’이나 ‘스캔들’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전봉관은 박인덕이 윤심덕(尹心惠)·김일엽(金一葉) 등과 함께 삼성학교를 다녔다고 밝힌다.

윤심덕은 열한 살에 진남포 삼성학교에 입학해 박인덕, 김일엽과 단짝 친구로 지냈다. 공교롭게도 훗날 세 여인 모두 남자 때문에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다. 박

인덕은 청년 부호 김운호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조선 최초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고, 김일엽은 네 차례 결혼에 실패한 뒤 수덕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2007, 522-36)

박인덕이 삼승학교를 다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구원서도 전봉관과 다르지 않다. 구원서는 박인덕이 “1903년 평안남도 진남포시에서 삼승학교를 졸업하고…”(8; 12) 하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감리교 인물사전에는 진남포의 삼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인덕이 진남포에서 다닌 학교는 삼성학교(三聖學校)도 삼승학교(三昇學校)도 아닌 삼승학교(三崇學校)이다. 20세기 초엽 진남포에는 삼성학교나 삼승학교라는 초등교육 기관은 없었다. 20세기 초엽 진남포에는 초등교육 기관으로 1907년 안중근(安重根)이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운 뒤 기독교 계통의 득신학교·삼승학교·해성학교 등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많은 사립초등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중등교육 기관으로는 1911년 상업보습학교, 1913년 실과고등학교, 1917년 상공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박인덕이 「과란 많은 내 반생」에서 “서당을 그만두고 진남포에 처음 생긴 삼승학교에 윤심덕(尹心惠)·김일엽·윤성덕(尹聖德) 등과 책보를 끼고 억개동무해서 나란히 다니었습니다”(1938, 203)라든지, “열두 살에 삼승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중학에 왔습니다”(209)라든지 하고 밝힌다. 이 삼승학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진남포에 세운 초등학교 과정의 학교이다. 박인덕의 말대로 이 무렵 삼승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여성으로는 일찍이 문학가로 활약하다가 세속적인 꿈을 모두 접고 예산 수덕사(修德寺)에 입산하여 만공선사(滿空禪師)의 제자가 되어 일생을 마친 김일엽(본명 金元周)과 이화학당 대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모교의 음악 교수가 된 윤심성, 그리고 현해탄에서 김우진(金祐鎭)과 함께 몸을 던진 윤심성의 동생 윤심덕 등이 있었다. 그러나 박인덕은 「나의 자서전」에서 “[남장을 하고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그곳에 비로소 생기는 삼승학교라는 그야말로 여자를 상대로 처음 되는 여학교에 들

어가 3년 만에 그 학교를 마쳤읍니다”(1939a, 38) 하고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박인덕이 잘못 기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녀가 삼송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김일엽이나 윤성덕·윤심덕 자매의 연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난 직후 한국 근대 문학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마련한 전영택(田榮澤)은 바로 이 삼송학교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박인덕이 진남포에서 다닌 초등학교가 그동안 ‘삼송학교’가 아닌 ‘삼송학교’나 ‘삼성학교’로 잘못 알려진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한다. 첫째, 이 세 학교는 발음이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표기할 때에도 잘못 표기하기 쉽다. 둘째, 이 두 학교 모두 진남포에 설립되어 있었다. 셋째, 이 두 학교는 기독교와 관련한 사람들이 설립한 미션스쿨이라는 점에서도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삼송학교는 초등교육 기관인 반면, 삼성학교는 중등교육 기관으로 이 두 학교는 서로 엄연히 다르다. 1905년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계기로 국권상실의 위기를 절감한 민족 지도자들은 이 무렵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06년부터 1910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수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붐을 타고 1908년에 진남포에 설립된 학교가 바로 삼송학교였다.

박인덕이 이화학당과 대학부를 졸업한 연도도 학자에 따라 조금씩 엇갈린다. 가령 구완서는 “1908년 이화학당 중학부와 1912년 대학부를 졸업하고…”(2008, 8)라고 밝히지만 이는 실제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1908년 삼송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박인덕이 곧바로 서울에 유학한 것은 아니다. 「과란 많은 내 반생」에서 그녀는 “열두 살에 삼송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중학에 왔습니다. 윤심덕 형제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부러웠는지 누구와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여름 방학에 내려갔다가 2학기에 상경할 때 따라 나섰지요”(1938, 209) 하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경성에 올라온 박인덕은 1912년에 이화학당 중학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이

화학당 대학과에 입학하여 1916년에 대학과를 제3회로 졸업하였다. 만약 결혼만 하지 않고 계속 이화학당에 남아 있었다면 박인덕은 아마 김활란(金活蘭, Helen Kim)보다 교육자로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출세하였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박인덕은 뒷날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는 이화학당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크다. 『구월 원숭이』에서 그녀는 “이 대학은 한국인의 삶에 등대가 되어 뒷날 어둡고 험난한 시대에 밝은 빛을 내뿜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Pahk 1954, 54)고 밝힌다. 대학과의 동급생으로는 박장순(朴長順)과 그레이스 안(Grace 安)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3학년 때 학교를 떠나고 다른 한 사람은 4학년 때 사망하여 박인덕 혼자서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 제4회와 제5회 졸업생도 한 명씩밖에 배출하지 못하였다. 뒷날 감리교 감독 유형기(柳澄基)의 아내가 되는 신준려(申俊勵, Julia Shin)가 제4회 졸업생이고,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로 이화여자전문학교 제7대 교장을 역임하는 김활란이 제5회 졸업생이다. 물론 박인덕은 이화학당과 대학부를 졸업한 지 20여 년이 지난 뒷날 학교 규율이나 분위기가 너무 폐쇄적이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1935년 『삼천리』 사에서는 ‘청춘을 앗기는佳人(佳人) 애사(哀史)’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에게 글을 부탁한 적이 있다. 박인덕은 「그리운 이화칼레지여」라는 글에서 “나는 아름다워야 할 소녀 시절을 ‘이화칼레지’에서 썩혔습니다. 지금은 몹시 개방되었습시다만은 우리가 다닐 적의 ‘이화대학’은 학교라기보다 꼭 수도원이었습니다”(1935, 99) 하고 밝힌다.

박인덕의 미국 유학과 그곳에서 받은 교육과 관련한 전기적 사항도 실제 사실과는 적잖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오세웅은 “박인덕은 1928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자마자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다른 나라들의 교육 시설을 시찰하였다”(2001, 300)고 밝힌다. 그러나 박인덕이 1928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 그녀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떠난 것이 1926년 7월, 그러니까 배화학당(培花學堂)과 감리교 여자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이다. 미국인 선교사로 배화학당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루비 리



(Rubie Lee)의 도움으로 그녀는 결혼 때문에 접어야 하였던 미국 유학의 꿈을 이제야 마침내 실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인덕이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교도 학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빚기 일쑤이다. 한국 문헌에는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웨슬리언(Wesleyan)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지아 주 메이컨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두 학교 모두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요 오류이다. 1919년 기미독립운동 직후와 그 해 12월 초교파적 교회연합 운동의 성격을 띤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조직이 경찰에 탄로 나면서 박인덕은 또 다시 투옥되어 한 달 남짓 고초를 겪는다. 두 번에 걸쳐 옥고를 겪은 뒤에도 그녀는 계속 이화학당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 룰루 프라이(Lulu E. Frey)의 뒤를 이어 당장(堂長)이 된 앨리스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의 주선으로 장학금을 받고 미국 오하이오 주 웨슬리언 대학에 유학 갈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김운호(金雲鎬)와 결혼하는 바람에 미국 유학을 포기한 박인덕은 몇 년 뒤에서야 조지아 주의 웨슬리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이다. 이 학교에 대하여 박인덕은 “미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학교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귀에 익숙이 들을 수 있는 저 중국의 송미령(宋美齡)·송경령(宋慶齡) 씨 같은 이가 다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1939a, 39) 하고 밝힌 적이 있다. 박인덕이 1836년에 설립한 이 대학을 두고 “미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여성에게 최초로 학위를 수여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으로 인정받은 학교는 두말할 나위 없이 1636년에 설립한 하버드 대학이다.

이 무렵 여성이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여간 보기 드문 일이 아니어서 일간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였다. 가령 『동아일보』는 ‘미국 가는 세 언니’라는 기사에서 박인덕에 대하여 “여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두 따님, 늙은 어머니를 떠나 얼른 돌아오지 못할 길을 밟게 된 것은 여사의 마음 가운데 ‘조선 여자 사회를 위해 좀더 잘 배운 일꾼이 되어 보자’ 하는 결

심이 얼마나 깊은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1926/07/06) 하고 밝힌다. 사랑하는 두 딸이나 늙은 어머니라는 표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사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구절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린다. 아무리 그럴 듯하게 겹포장을 하여도 박인덕의 미국 유학은 불행한 가정생활에서 도피하려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유학에 대하여 그녀는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조국을 위하여, 내 가정생활을 위하여—만약 가정생활에 미래가 있다면—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머지 정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쪽이 더 옳을 것이다”(Pahk 1954, 90) 하고 말한다. 여기서도 “내 가정생활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만약 가정생활에 미래가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구월 원숭이』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박인덕은 『삼천리』에 기고한 글에서 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회고하면서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박인덕은 웨슬리언 대학에서 2년 동안 학부 과정 수업을 받은 뒤 1928년 이 대학에서 사회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박인덕은 미국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령 강정숙은 “배화의 교사였던 루비 리의 협조로 1926년 웨슬레안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사회학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 사범대에서 교육학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1993, 297)고 주장한다. 또 한국감리교 인물사전에도 박인덕은 웨슬리언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인덕이 다니던 1920년대 웨슬리언 대학에는 박사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석사과정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학교는 특정 분야의 전공 교육보다는 일반교양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대학으로 오늘날까지도 오직 학사학위만을 수여하고 있다. 더구나 2년이라면 박사학위는 고사하고 석사학위조차 받기 어려운 기간이고, 전공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박사학위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만 웨슬리언 대학에서 박인덕이 주로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때 사회

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컬럼비아(Columbia)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받았다는 ‘교육학 문학석사’ 학위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박인덕은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전봉관도 강정숙과 마찬가지로 박인덕에 관한 간략한 연보에서 “1926년 7월 미국 유학, 웨슬리언 대학 학부 졸업. 컬럼비아대학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이라고 밝힌 뒤 그녀가 학위를 받는 과정과 그 뒤의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힌다.

박인덕의 미국 유학은 성공적이었다. 3년 만에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대학원에 다니던 1928년 가을부터 1931년까지 국제기독교청년회 초청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32개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열었다. 컬럼비아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파리 대학 등 서구 우수 대학에서 2년 반 동안 무려 260회나 강연했다. 대략 열흘에 한 번꼴로 강연한 셈이다. (2006, 282, 289)

박인덕의 학력과 관련하여 전봉관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3년 만에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하고”라는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 방금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박인덕은 한국에서 대학 과정을 밟은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받아 이 대학에 3학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2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수 있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녀는 “나는 교비를 얻어 가지구 이 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년 동안에 비용이 이천사백 딸라나 되었습니다” (1939a, 39) 하고 밝힌 적이 있다. 또한 박인덕이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뒤에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크게 다르다. 이 무렵 박인덕은 차별하게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과 간증을 하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강의

를 들었고 마지막 학기에만 학업에 전념하며 가까스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실무 교육을 중시하는 사범대학에 소속된 대학원이었기 망정이지 연구 중심의 일반 대학원에서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찌 되었든 박인덕이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학 학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과오이다. 한편 전봉관은 박인덕의 학력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만듦으로써 이혼과 관련한 그녀의 사생활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박인덕이 “1928년 가을부터 1931년까지 국제기독교 청년회 초청으로” 북미 대륙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순회강연을 하였다는 대목도 실제 사실과는 적잖이 차이가 난다. 박인덕은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대학생 선교대회에서 「나의 종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고, 이 연설이 인정받아 그 뒤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미국 기독교 계통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원봉사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연사로 발탁되어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며 강연과 간증을 하였다. 1931년 2월 컬럼비아 대학 사범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인덕은 유럽에서 강연과 간증을 계속하면서 귀국길에 오른다. 박인덕에 따르면 귀국하기까지 32개국에 무려 1천여 회에 걸쳐 강연과 간증을 하였다. 1931년 10월 그녀가 귀국하였을 때 명월관(明月館)에서 귀국 환영 모임이 열렸고, 각계각층의 인사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치호(尹致昊)가 사회를 맡았다(정충량, 1967). 이 무렵 박인덕에 대한 관심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쉽게 미루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IV. 박인덕의 결혼과 이혼

박인덕의 결혼이나 이혼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 학계에 알려진 내용도 실제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1910년대에는 아직 경성제국대학(京城帝

國大學)도 설립되기 이전이어서 그녀가 다니던 이화학당의 대학과는 국내에서는 최고 고등교육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수도 아주 적어 경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이 무렵 박인덕은 미모인 데다가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며 통솔력도 있어 여간 큰 인기가 아니었다. “노래 잘하는 박인덕, 연설 잘 하는 박인덕”이니 “인물 잘난 박인덕”이니 하고 그녀는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경성에서는 “이화대학의 꽃”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다(삼천리 1936/06, 404). 특히 이 무렵 그녀는 당장 프라이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한 제자의 소개로 그녀의 오빠 김운호를 만나 사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배재학당(培材學堂)에서 한때 축구선수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10여 년 전에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다. 전봉관은 “박인덕은 결혼 조건으로 본처인 이 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2006, 297)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운호는 박인덕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본처와는 이혼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때 박인덕은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아펜젤러 당장한테서 미국 유학을 제안 받고 있어 결혼과 유학 사이에서 적잖이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유학을 포기하고 1920년에 김운호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은 박인덕과 김운호의 결혼식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가령 전봉관은 이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는 나머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한껏 과장하여 묘사한다. ‘과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왜곡’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지 모른다.

이 씨의 아픔에도 아랑곳없이 박인덕과 김운호의 혼담을 순조롭게 진행됐다. 두 사람은 1920년 6월 정동 예배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동대문 밖 홍수동에 ‘스위트홈’을 차렸다.(2006, 298)

위 인용문에서 ‘이 씨’란 경성 동막골(지금의 마포구 대흥동)에 살다가 김운호와 결혼한 여성을 말한다. 박인덕과 김운호의 혼담이 ‘순조롭게’ 진행

되기는커녕 온갖 반대에 부딪혔다. 이화학당의 당장 아펜젤러를 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은 박인덕이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남아 학교와 조선 사회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장학금을 주어 미국 유학을 주선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박인덕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며 딸을 결혼을 말렸다. 어머니는 딸에게 “너는 이제 산을 거의 다 쌓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허물러 버리려고 하는구나!” (Pahk 1954, 75) 하면서 애원하다시피 하며 김은호와 결혼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박인덕이 끝내 결혼을 선택하자 크게 실망한 어머니는 다시는 고향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딸과 의절하다시피 하였다.

또한 “1920년 6월 정동 예배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라는 구절도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결혼식 날짜부터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한 날짜도 ‘1920년 6월’ 이 아니라 이 해 7월 7일이다. 7월 초 『매일신보』나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신문을 보면 온통 대홍수 소식으로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경성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물난리가 났다. 신문에서는 50년 만에 큰 홍수가 내렸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박인덕이 대홍수가 나던 달 결혼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6보다는 7월에 결혼한 것으로 보는 쪽이 더 정확하다. 또 정동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몇 사람만 참석한 가운데 김운호의 집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화학당의 친구들마저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전봉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성대한 결혼식’ 이기는커녕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다시피 하였다. 실제로 뒷날 박인덕은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은 마치 장례식과 같았다” (Pahk 1954, 80)고 회고한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박인덕이 김운호와 결혼식을 올린 뒤 “동대문 밖 홍수동에 ‘스위트홈’을 차렸다”는 전봉관의 진술도 실제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전



봉관은 이 구절을 1931년 『신동아』 12월호 기사에서 취해 왔다. ‘몽통구리(夢通九理)’라는 필명을 사용한 어느 필자가 ‘조선이 나흔 현대적 노라’라는 부제 아래 「가정에서 사회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녀는 조선 여자교육의 최고 학부인 이화학당 졸업생이다. 이화를 졸업하고 나서 당시 부호(富豪) 청년인 김운호 씨와 가정을 꿈이고 동대문밖 별장에서 스위트홈을 꿈이엇섯다”(1931, 96)고 밝힌다. 전봉관이 박인덕을 두고 ‘조선의 노라’ 운운하는 것도 바로 이 기사에서 빌려온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유럽에서 현대 페미니즘에 처음 불을 댕긴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Henrik Ibsen)의 희곡 작품 『인형의 집』(1879)의 여주인공 노라 헬메르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에 반기를 들고 여성 해방을 부르짖으며 여주인공 노라는 집을 박차고 나왔던 것이다. ‘몽통구리’라는 필자는 “노라는 남편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들까지도 뒤로 두고 집을 켜난 것이었다. 개성의 독립을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자식을 켜나며 가정을 던지고 나서는 조선의 현대적 노라!”(97)하고 자못 영탄조로 기술한다. 방금 앞에서 밝혔듯이 결혼식 날 한강이 범람할 정도로 큰 홍수가 내려 며칠 동안 신혼여행도 제대로 떠날 수 없었다. 가까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은 홍수동(오늘날의 동대문구 창신동)에 별장 한 채를 전세로 얻어 신집살림을 꾸려야 하였다. 홍수동에 짓던 집은 이사하기도 전에 불이 나서 타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결혼식을 올린 지 두 주일이 지난 때부터 박인덕은 김운호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첫 번째 아내와는 법적으로 이혼하였지만 그한테는 기생첩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박인덕은 온갖 사람의 권유와 설득을 뿌리치고 김운호와 결혼한 자신을 탓한다. 이 무렵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구약성서의 요나에 빗댄다. “저는 지금 고래의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심부름을 가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한테 불충을 저지르는 것에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Pahk 1954, 83) 하고 고백한다. 절망에 빠진 박인덕은 어느 날 밤 나뭇가

지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려고 남산에 올라갔다가 단념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결국 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에게 모두 맡기로 결심하는 선에서 자신과 타협하고 자살을 포기하는 것이다. 박인덕은 어느 누구보다도 남녀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실망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실로 진정한 연애를 의미한 연애 감정이야말로 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아닐 수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인류를 사랑하고 국가 사회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도 이 높고 아름다운 연애 감정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1936b, 70) 하고 밝힌다.

국내 몇몇 학자는 박인덕이 주위 사람의 온갖 권유와 설득을 물리치고 김운호와 결혼하는 것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강정숙은 “박인덕은 유학이라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혼 상대는 김운호라는 부호였다”(1993, 296-97)고 밝힌다. 전봉관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운호를 백만장자로 미화시킨다. 가령 전봉관은 “망설이는 박인덕 앞에 백만장자 김운호가 나타났다”니, 친정으로 쫓겨난 김운호의 전처 이 씨에 대하여 전봉관은 “백만장자 안방마님의 10년 영화가 일장춘몽이었다”니 하고 말한다(2006, 301). 그러나 김운호가 부호나 백만장자라는 것은 실제 사실과 조금 다르다. 망금 앞에서 언급한 글에서 ‘몽통구리’라는 필자는 김운호를 ‘부호 청년’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1931, 96). 김운호의 경제력은 아마 기껏해야 이 정도로 부르는 쪽이 정확할 것이다. 경성에서 사업을 하던 중산층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조금 넘어서는 생활수준이었고, 그나마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사업이 실패하고 첫 번째 아내와 첩에게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생계조차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였다. 신접살림을 차린 지 몇 달 뒤 박인덕과 김운호는 동대문 밖에 기와집 한 채를 빚을 얻어 전세를 얻어 살았지만 전세를 낼 수 없자 청계천 근처 짠 집으로 이사한다. 이 집도 세를 낼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다시 마장동 도살장 근처에 있는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사할 때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빚

독촉을 받기도 한다. 이 무렵 박인덕은 식량조차 없어 시어머니가 큰아들한테서 받는 쌀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궁핍하였다.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현동 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박인덕은 우표를 살 돈이 없어 편지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박인덕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무척이나 분주하게 생활하였다. 조선시대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삼촌 윤덕영(尹德榮) 자작 집에서 가정교사로 영어를 가르쳤는가 하면,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성서학교(감리교 여자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또한 1921년에서 1926년까지 배화학당의 교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하여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무렵 박인덕의 활동에 대하여 전봉관은 “청년 부호와 결혼했다고 민족과 여성을 향한 박인덕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을 향한 열정은 결혼 후 더 커졌다”(2006, 286)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무렵 박인덕이 가정교사와 학교 교사 등으로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일한 것은 “일을 향한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6년을 사느라고 사는 사이에 나는 내 자신까지 아주 갇아케 이저버리도록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한가할 수 없었습니다. 培花學校 시간교수, 待天教堂, 개인교수, 어쨌든 하루에 열네 시간 노동으로 몸은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 마음도 또한 그 이상으로 피곤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했습니다. 地獄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쾌한 시간이라곤 없었습니다. (…)

나를 살리자. 아랫들을 빼여 윗목에 막고 옷들을 빼여 아랫목에 막는—밤낮 마찬가지로 空虛한 생활에서 뛰어나자.

결국 나는 이렇게 결단을 짓고 旅裝을 꾸려 米國으로 떠났든 것입니다. 남들이야 別別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天堂이었습니다. 묵어운 쇠사슬이 내 발목에 항상 열키여 내 거름을 방해하든 것이 툭 끊기여 나간 듯했습니다. (1938, 211).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인덕이 두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두고 미국 유학을 떠난 것은 일에 대한 열정과 는 거리가 멀었다. 고국을 떠난 뒤 그녀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웃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한다. 그만큼 김운호와 의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는 ‘지옥’ 이요 ‘쇠사슬’ 이었다는 반증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고백이기 때문에 박인덕이 말하는 지옥과 천당의 은유가 더더욱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가 하면 전봉관은 이번에는 박인덕이 김운호와 결혼한 이유를 그녀의 어머니한테서 찾기도 한다. 늙은 어머니를 진남포에서 홀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돈 많은 김운호를 남편으로 택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전봉관은 “박인덕이 자기 한 몸 편하자고 부유한 유부남 김운호와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다. …환갑을 훌쩍 넘긴 홀로 두고 차마 [유학행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2006, 301)고 밝힌다. 그러면서 “김운호는 박인덕의 노모를 극진히 떠받들어 반인덕의 환심을 샀다” (301)고 말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위로부터 ‘극진히’ 대접을 받기는커녕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결혼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은 어머니였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김운호는 장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인덕의 어머니가 경성에 처음 올라와 김운호를 만난 것은 첫 애가 태어나고 박인덕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배화학당 근처에 겨우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한 뒤였다. 박인덕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 상경하였던 것이다. 뒷날 박인덕이 김운호와 이혼하고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은 뒤 사직동 근처에 집을 지었을 때 어머니는 진남포를 떠나 경성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며 여생을 보낸다.

박인덕의 이혼도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다. 강정숙은 박인덕의 친일 행동에 관심을 쏟는 나머지 이혼 같은 사생활은 다루지 않고, 또 구완서는 구완서대로 목회자와 인덕학원과의 관계 때문에 ‘구난의 축복’ 이라는 말로

이 문제를 비켜간다. 그러면서도 구완서는 “박인덕은 팔자에 없는 결혼을 하느라고 모든 것을 잃었다. 박인덕과 웨슬리는 숙명적으로 비슷한 사명자였다고 본다”(2008, 21)고 밝힌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다름 아닌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종교 개혁가 존 웨슬리(John Wesley)를 말한다. 웨슬리는 일찍이 자기 어머니만한 여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표’와 동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아내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과장하여 기술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봉관이다. 그는 박인덕을 다루는 장에 「조선의 ‘노라’ 박인덕 이혼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인 뒤 “‘신여성 선두 주자’는 왜 남편과 자식을 버렸나”라는 선정적인 문장을 부제목으로 삼는다. 구완서는 “한 인간의 사람에 대하여, 특히 그의 로맨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다”(2008, 19)고 밝힌 적이 있는데 아마 전봉관의 이 글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박인덕이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굳이 그 책임을 따진다면 박인덕보다는 김운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딸 김혜란(金慧蘭, Iris)과 김혜련(金慧蓮, Lotus)의 양육비로 미국에서 푼푼히 모아 보내준 돈으로 그는 첩을 두고 있었다. 박인덕은 이미 신혼 초부터 남편이 유교 전통의 가부장 질서에 철저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래 조선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혼을 했습니다. (...) 가령 무슨 써거가는 물건이 있다 하면 그 물건이 다 썩어지기 전에 그 썩어진 부분만을 잘라버리면 그 남은 부분만은 생생하게 그대로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내외의 사이도 그렇게 잘라 버리지 않았으면 밑동까지 다 썩고 말았을 것이라고 압니다. (1939a, 39)

위 인용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박인덕에게 이혼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박인덕과 김운호의 사이는 찢어 가는 물건과 같아서 만약 찢은 부분을 잘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성한 부분까지도 찢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박인덕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한국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최초의 여성으로 꼽힌다. 그러나 박인덕이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였다는 것은 어찌면 풍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몽통구리’라는 필자는 「가정에서 사회로」에서 “風說에 의하면 이번 이혼하는 데 남편에게 현금 2천圓을 주고야 타협이 되었다는 등 쏘는 뉴욕에 南史의 ‘그 사람’이 잇는 故로 不遠한 장래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리라는 등 이야기가 잇서서 여기저기서 쑥쑥거리는 모양이나 아마 근거 업는 풍설일 것이다”(1931, 97) 하고 밝힌다. 김운호와 이혼한 뒤 뉴욕에 결혼할 남성이 있다고 소문을 말하는 것을 보면 남편에게 현금을 주고 이혼하였다는 소문도 그렇게 믿을 것은 못된다. 『제일선』이라는 잡지에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머니 박인덕」이라는 기사를 실는다. 이 기사를 쓴 필자도 “박인덕 … 최근 가장 만히 이야기거리가 된 여인”이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한동안 노상 재료가 아쉬운 조선의 써나리스트의 조흔 일감이 된” 여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니 돌아오는 어머니요 돌아와서 아니 돌아오는 안해요 돌아와서 아니 돌아오는 며누리다”(제일선, 1932/07, 74) 하고 적는다. 어찌되었든 서구 자유주의 정신을 호흡한 신여성으로서 박인덕의 이혼은 아직도 철옹성처럼 굳건한 유교적 가부장 질서에 저항하는 상징적 의미가 무척 컸다. 적어도 이 점에서 그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을 몸소 실천한 여성 운동가로 볼 수 있다.

V. 박인덕의 사회 활동과 친일 행위

박인덕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공적 생활도 적잖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고 때로는 심지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구완서는 “당시대 여성으로서 박인덕만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수사적 질문을 던진 뒤 곧바로 “일제 식민지하에서 세계를 누비며 많은 공헌을 하였다”(2008, 25)고 지적한다. 그러나 1930년대에서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그녀가 한 행동을 ‘국위 선양’이라고 간주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물론 박인덕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면서 조선의 존재를 널리 알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한국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해방 뒤에는 미 군정청의 요청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선전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구월 원송이』가 출간되었을 때 로버트 스미스(Robert Aura Smith)가 『뉴욕타임스』에 이 책에 관한 서평을 기고하면서 박인덕을 두고 “한국에서 온 대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1954, 34).

그러나 일제 강점기 박인덕의 연설 활동은 주로 미국의 대학생 기독교 단체인 ‘학생자원봉사운동(SVM)’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식민지 현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덴마크의 실험학교를 본떠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학교를 설립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연설은 주로 기금 모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미군정 기간 동안에 벌인 그녀의 활동도 구완서의 말처럼 국위를 선양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군정 시절에는 주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고, 미국에 건너가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연설을 하였다. 이미 박인덕에 앞서 영문 소설 『초당(草堂)』(1931)과 『동양사람 서양에 가다』(1937)를 발표하여 ‘한국계 미국 문학’의 초석을 다진 강용홍(姜鏞訖, Younghill Kang)이 직업적인 강연사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 뒤에는 한국인으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초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노영(朴魯英, No-Yong Park)이

역시 미국에서 전문 강연사로 활약하였다. 이 두 사람처럼 박인덕도 문화 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은 그런 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 강점기 박인덕의 활동에 대하여 구완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헌신으로 독립운동과 교육 계몽에 전심전력을 다한 대한의 별이다” (2008, 14) 하고 밝힌다. 그러나 박인덕이 벌였던 독립운동도 유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녀가 이화학당 교사 시절 학생시위를 주도하고 유관순이나 남동순 같은 학생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한애국부인회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박인덕은 미국에 유학할 때 항일 여성단체라고 할 ‘근화회(槿花會)’를 조직하여 활약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1928년 2월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여자 유학생들이 조직하였다. 발기인으로는 박인덕을 비롯하여 김마리아(金瑪利亞), 황애덕(黃愛德), 이선행(李善行), 이헬렌, 윤원길(尹元吉), 김애희(金愛喜), 김매리(金梅利) 등이 참여하였으며 김마리아가 회장을 맡았다. 그 회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화회는 대한애국부인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설립 목적은 ① 조국 광복의 대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미 한인사회의 일반 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② 여성 동포의 애국정신을 고취하여 대동단결을 이루고 재미 한인사회 운동의 후원 세력이 되며, ③ 재미 한인의 선전 사업을 협조하되 특별히 출판과 강연으로 국내 정세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일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었다(박용옥 1992). 근화회의 발기인과 회원들은 모두 미국에서 고학하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미약하여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 다만 미국 여자 유학생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여성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광복 운동을 후원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주독립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구완서는 박인덕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 일 중에서 한글 보급을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박인덕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다름 아닌 한글의 소생이었다”(2008, 14)고 밝힌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문맹과 다름없는 농촌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의 내선일체의 식민주의 정책에 따라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박인덕이 죽어가는 한글을 ‘소생’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는 적잖이 차이가 난다. 한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고 옥고를 치른 한글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박인덕의 활동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못된다.

박인덕은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는커녕 해외 생활이 잦아지면서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되자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친일 단체 녹기연맹(綠旗聯盟)의 쓰에 아이코(須江愛子)한테서 직접 일본어를 사사받기 시작하여 하시기타 마치(橋北町)가 운영하는 국어강습회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녹기연맹은 박인덕을 황도주의(皇道主義)에 이용하는 한편, 박인덕은 녹기연맹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박인덕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Pahk 1954, 195)고 말하고 있지만 어딘지 구차스러운 변명처럼 들릴 뿐이다. 한 강연회에서 그녀는 “内地 여성들의 정신과 생활을 배우는 데는 국어를 한 마디 두 마디씩이라도 배우는 것이 또한 길이 됩니다. 말을 배우므로 자연히 일본 정신에 이끌려짐을 나 자신의 경험으로 압니다”(기독교신문, 1942/06/03) 하고 밝힌다. 여기에서 ‘内地 여성들’이란 바로 일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말하고, ‘국어’란 일본어를 가리키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인덕이 밝히고 있듯이 일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일본 정신’을 호흡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한국어를 말살하는 것은 곧 한국인의 혼과 얼을 빼앗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구원서는 박인덕이 “민족을 위하는 헌신으로” 독립운동과 함께 “교육 계

몽에 전심전력을 다한 대한의 별”이라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다는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박인덕이 교육 계몽에 온힘을 쏟았다는 것은 아마 귀국 후 1932년 황애덕·최활란(崔活蘭)과 함께 망월구락부(望月俱樂部)를 개편하여 조선직업부인회(朝鮮職業婦人會)를 설립함으로써 여성 계몽과 교육 운동을 전개한 것을 언급하는 것 같다. 그 이듬해에는 농촌 부녀자를 위한 아동 학교를 개설하는 한편, 감리교 농촌부녀지도자 수양소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구완서는 박인덕이 덕화의숙(德和義塾)을 비롯한 인덕실업학교를 설립한 것을 두고 언급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1963년에 설립한 인덕실업학교는 논외로 하고, 1941년 4월 설립한 덕화의숙은 교육 계몽 못지않게 친일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강정숙이 지적하듯이 덕화의숙은 녹기연맹 부설 기관인 청화여숙(淸和女塾)을 모델로 삼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자매학교와 다름없었다(1993, 299). 청화여숙 개교식 행사에 오늘날의 검사장에 해당하는 검사정(檢事正) 야마사와 산조(山澤三造)와 나가사키 유조(長崎祐三)를 비롯하여 조선군병무부장 구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이화여학교 신도순(辛島純) 등이 축사를 읽었고, 교사들도 녹기연맹의 쓰다 세츠코(津田節子)와 청화여숙 교사들이 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일제 강점기 박인덕의 친일 행적에 이르면 국위 선양이나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빛을 잃는다. 특히 1940년대에 들어와 그녀의 친일 행동은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41년에는 임전대책협의회 위원, 1943년에는 조선교화단체연합회 부인계몽동려반,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 1945년에는 조선언론보국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2년 5월 박인덕은 감리교단 경성 교구의 주최로 열린 한 부인 강연회에서 「징병제 실시와 반도 여성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그녀는 조선 여성들에게 자녀를 천황의 적자로 양육하여 일본 제국에 바칠 것을 역설하였다.



오늘의 반도의 여성은 훌륭한 군인의 어머니나 아내가 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 그런즉 우리 어머니들은 첫째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십시오. 우리의 아들은 지금부터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요 천황 폐하의 赤子요, 국가의 것이니까 아무쪼록 튼튼하게 길러서 바치십시오.(기독교신문 1942/06/03)

위 인용문으로 보면 이 무렵 박인덕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본 식민주의 정책에 협조하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조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마치 농부들이 애써 수확한 곡식을 군량미로 일본 정부에 바치듯이 아들과 남편을 일본 국군주의 희생 제물로 기꺼이 바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박인덕은 잡지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에 글을 기고하여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권고하는가 하면, 온갖 강연회나 좌담회에서도 연사나 사회자로 젊은이들에게 학병에 지원할 것을 독려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구완서는 “그녀는 지극히 한정적인 자유만을 가진 하나의 식민지 국가의 여성이었다”(2008, 26)고 밝힌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면 일제의 비위에 맞는 말 몇 마디 또는 글 몇 줄을 써 넣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 봉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세월이었다”(2008, 32)고 박인덕의 친일 행위를 두둔한다. 그러나 이 무렵 박인덕의 친일 행위는 “민족을 위한 생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일제의 비위에 맞는 말 몇 마디 또는 글 몇 줄” 삽입하는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주의자로 활동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방 뒤 미군정기에는 독립촉성애국부인회(獨立促成愛國婦人會)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여성 지도자로도 활약하였다.

해방을 맞이한 뒤 1948년 백범(白凡) 김구(金九)의 지시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계열에서 친일파 명단을 작성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박인덕이 들어가 있고, 그녀가 ‘청화여숙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친일 행동을 한 근거로 든다. 그런데 박인덕이 ‘덕화여숙장’을 지낸 것이 아니라 ‘청화



여숙장'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 실제로 박인덕이 잠깐 동안이나마 청화여숙의 책임자로 있었거나, 아니면 '덕화여숙장'이라고 표기할 것을 잘못 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든 박인덕이 친일 행위를 하였음에는 틀림없다. 박인덕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중 교육 및 학술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듬해 11월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VI. 결론

박인덕의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여야 할 일은 전기적 사실의 오류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출생에서 사망, 교육 과정에서 개인적 삶과 공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 전체에 걸쳐 전기적 사실에 크고 작은 오류가 많다. 이러한 오류를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박인덕 연구는 자칫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기적 사실과 관련한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정하고 보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녀가 사망한 지 3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잘못된 기록이나 연구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으면 이러한 오류는 앞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데 지나치게 박인덕의 자서전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으로 받아 온 박인덕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미화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 한편 선정적인 잡지 기사에만 의존하여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려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느 쪽에 의존하든 연구자는 텍스트 내적 증거 못지않게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박인덕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한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지금껏 그녀의 활동 중에서 학자들한테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여성 운동가 중에서 박인덕은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 계몽가나 교육자로 평가받아 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영역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무렵에 활약한 여성 운동가 가운데에서 아마 박인덕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활약한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박인덕이 번역가나 문인 또는 저술가로서 활약한 사실은 그동안 국내 및 외국 학계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활동까지 폭넓게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박인덕의 삶과 업적을 좀 더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인덕은 1920년 김일엽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본격적인 여성 종합잡지 『신여자』의 창간 편집동인으로 활약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황석우(黃錫禹)를 비롯하여 박영희(朴英熙), 변영로(卞榮魯), 노자영(盧子泳), 박종화(朴鐘和), 오상순(吳相淳) 등 한국 문학사에서 내로라하는 문인들과 함께 문예동인지 『장미촌』의 창간 동인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박인덕은 1921년 발간된 이 문예지의 창간호에 미국 시인 호킨 밀러(Joaquin Miller)의 「콜럼버스」를 한글로 번역하여 실었다. 같은 해 그녀는 『신천지(新天地)』에 또 다른 외국 시 「고애우(故愛友)의 정(情)」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밖에도 박인덕은 1933년에는 헬렌 배럿 먼트가머리(Helen Barrett Montgomery)가 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1929)와 루시 피바디(Lucy W. Peabody)가 쓴 『어리신 주 예수』(1928)를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 두 책은 그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기독교 관계 책자이다.

한편 박인덕은 번역뿐만 아니라 한글로 직접 소책자나 저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가령 1930년대 초엽 그녀는 『덴마크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농촌 일꾼을 위한 조언서』, 『나의 세계 여행』 등을 출간하였다. 첫 번째 책은 유럽 순회강연 중 덴마크의 실업학교 시설을 시찰하고 쓴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인덕실업학교를 설립하면서 덴마크 실업학교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책은 농촌 계몽 활동을 전개

하면서 느꼈던 농촌 지도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지침서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느낀 인상을 적은 여행기이다. 한글로 쓴 이 세 책도 그녀가 번역한 작품 못지않게 박인덕의 삶과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자못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인덕의 저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영문으로 자서전을 세 권 집필하여 미국에서 출간하였다는 점이다. 『구월 원숭이』를 비롯하여 『호랑이 시』와 『새벽닭은 여전히 운다』가 바로 그것이다. 『용의 지혜』라는 책도 출간하지만 이 책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이 아니라 동양의 명언이나 잠언을 뽑아 정리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 권의 자서전 중에서도 특히 『구월 원숭이』는 주목할 만하다. 박인덕의 성장 과정을 비롯하여 초기 여성 교육의 실태, 가부장 질서 속에서 신여성이 느끼는 갈등, 일제 강점기 피폐한 농촌 실정, 미국 유학생들의 생활, 그리고 어수선한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등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책은 좁게는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넓게는 한국계 미국 문학이 발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투 고 일: 2011년 4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8일]

참고문헌

- 강정숙. 1993.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과 99인 · 2』. pp. 289-303. 서울: 돌베개.
- 구완서. 2008. “박인덕의 생애와 사상.” 『대학과 복음』 13: 7-36.
- 김옥동. 2004. 『강용홀: 그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7. 『김은국: 그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원룡 저 · 손보기 편. 2004.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해안.
- 김현철 · 박노자 · 고미숙 · 권인숙 · 나임윤경. 20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 몽통구리. 1931. “가정에서 사회로: 조선이 나흔 현대적 노라.” 『신동아』 12월: 96-99.
- 박용옥. 1992. 『한국여성독립운동』. 서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박인덕. 1935. “그리운 梨花칼레지여.” 『삼천리』 3월호: 98-99.
- _____. 1936. “이십 년 후의 숙녀 (3); 太西洋上의 박인덕 씨.” 『삼천리』 11월호: 404.
- _____. 1938. “과란 많은 내 반생.” 『삼천리』 11월호: 207-212.
- _____. 1939a. “나의 자서전.” 『여성』 제4권 제3호, 3월: 38-40.
- _____. 1939b. “박인덕 여사의 연애관.” 『삼천리』 6월호: 70-72.
- _____. 1942. “징병제 실시와 반도 여성의 각오.” 『기독교신문』 6월 3일.
- 전봉관. 2006. 『경성기담: 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 서울: 살림.
- _____. 2007. “윤심덕 · 김우진 ‘현해탄 정사(情死)’ 미스터리.” 『신동아』 통권 576호: 522-536.
- 정충량 편. 1967. 『이화 8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저자 미상. 1932.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머니 박인덕.” 『제일선』 7월호: 74-75.
- Han, Jae-Nam. 1996. “Korean-American Literature.” Apana Sharma Knippling, ed. *New Immigrant Literatures in the United States: A Sourcebook to Multicultural Literary Heritag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Oh, Sewoong. 2001. “Induk Pakh.” Guiyou Huang, ed. *Asian American Autobiographers: A*



Bio-Bibliographical Critical Sourcebook,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Pahk, Induk, 1954, *September Monkey*, New York: Harper & Brothers.

_____. 1965, *The Hour of the Tiger*, New York: Harper & Brothers.

Smith, Robert Aura, 1954, "Ambassador from Korea," *New York Times Book Review*,

November 7: 4.

<http://netfiles.uiuc.edu>

ABSTRACT**Some Mistakes Concerning Biographical Accounts of Induk Pakh****KIM Wook Dong**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Sogang University

Historiographical in its approach,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and correct some prevalent mistakes and errors concerning biographical accounts of Induk Pakh(1897-1980), one of the most neglected female educators and autobiographers not only in Korean academia but abroad as well. On the assumption that Pakh was one of the important female leaders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modern Korea,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some major, as well as minor, mistakes and errors surrounding her biographical data. A closer research of historical data reveals that most of biographical accounts of Induk Pakh are for a variety of reasons insufficient, vague, and inaccurate. Pakh, for instance, was born in 1896, not in 1897 — as many scholars have wrongly assumed so far. Her birthplace was not Pyongyang but a small village in Chinnampo, Pyongnam Province, which is located approximately 65km southwest of the largest city in North Korea. Informations on her marriage and divorce and on her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and after its emancipation from Japanese rule are most flagrantly inaccurate.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Induk Pakh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not only to Korean literature but also to Korean American literature in particular and Asian American literature in general. In sum, the future scholars of Induk Pakh will be prone to build the critical or scholarly castles in the air unless some mistakes and



errors relating to her biographical accounts should be properly taken into account and corrected.

Key Words Induk Pakh, autobiography, immigrant autobiography, Korean American Literature, feminist movement

